



일본의 '대학 설치 기준' 과 교육 과정 개혁

유 영 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객원 연구원

I. 서 언

최근 일본의 교육은 학급의 붕괴나 등교 거부 학생의 증가, 청소년 비행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나 능력의 신장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4년 8월에 발족한 임시교육심의회는 당시 일본 교육 개혁의 목표를 개성 중시, 생애 학습 체제 확립, 국제화, 정보화 등으로 설정하였고, 이후의 개혁은 대체적으로 이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일본 문부성에서는 「교육 개혁 프로그램」(97.1.24 확정 이후 '99년 3월까지 3회에 걸쳐서 개정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의 교육 개혁 목표는 초·중등 교육의 경우 '살아가는 힘' 즉, 생활력의 육성에 있으며, 고등 교육의 경우 1991년에 개정된 대학 설치 기준의 대강화, 탄력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 대학 교육 과정의 개혁, 자체 평가의 시행 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과 같은 일본에서의 고등 교육 개혁은 제 2차 세계 대전에 패배한 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맞이한 신제대학의 시기를 지나 1991년 '대학 설치 기준'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설치 기

준은 대학 교육의 대강화와 탄력화를 지향하였으며, 이것은 일본의 대학 개혁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 설치 기준에서 나타나는 개혁의 핵심 과제는 대학 교육 과정의 개혁과 자체 점검 및 평가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체 점검과 평가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제는 대학의 조직과 제도 또는 구조의 개혁과 맞물려 시행되고 있다. 교육 과정의 개혁은 수업 과목 구분 기준의 폐지와 단위 제도의 탄력화, 자체 점검 및 평가는 대학 개혁에 대한 내부적인 점검 및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의 평가까지도 포괄하는 개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0년 1월 문부대신 중증근홍문(中曾根弘文)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교서(敎訓)에는 지금까지의 대학 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더 다양하고 개혁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립 대학의 체제 정비와 국제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의 설치, 대학 평가나 학위 수여 기구의 설치, 국립 대학의 독립 행정법 인화, 사학의 조성 추진 등의 시책이 포함되어져 있다.

II. 일본의 '대학 설치 기준'

전후 일본의 대학 개혁은 우선 1956년 대학 설치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소화 31년 문부성령 제 28호) 대학 설치 기준의 대강화와 간소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일본 대학의 현실은 외부적으로는 미국식, 내부적으로 유럽식 제도가 그대로 온존되고 있었다.

현재 대학 개혁의 법적 기준은 「대학 설치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省令)」(문부성령 제 24호, 평성 3년 6월 3일, 동년 7월 1일 시행, 이하 '대학 설치 기준'이라 함.)이다. 이 대학 설치 기준 평성 3년 2월 8일 대학 심의 회의 답신인 「대학 교육의 개선에 관하여」에서 제안된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현재 일본의 대학 개혁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1991년 대학 설치 기준의 기본 취지는 개개의 대학이, 그 교육 이념 목적에 기초하여, 학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특색 있는 교육 연구를 전개할 수 있도록 대학 설치 기준의 대강화와 제도의 탄력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평생 학습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학에서 평생 학습 기회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대학의 수준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자기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있다.

1. 대학의 자기 점검 및 평가

대학 설치 기준 제 2조에 의하면 대학 설치 기준의 대강화와 제도의 탄력화로 인하여 대폭적으로 완화된 대학 교육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과 자기 평가를 사회적인 책무로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제 2조 제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자체적인 평가 체제와 항목 등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연구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교육 연구상의 기본 조직

교육 연구상의 기본 조직으로서 학부와 학과 그리고 과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부의 경우 개정 전 규정되어 있던 학부의 종류를 폐지하고, 학부 교육의 다양성, 새로운 학문 분야의 등장을 고려하여 전공에 의한 교육 연구의 필요에 따라서 조직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 3조)

학과는 전공에 따라서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전공 분야를 교육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 교육의 다양화나 학과의 세분화 그리고 다양한 코스설치를 대학의 재량에 맡기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였다.(제 4조)

과정의 경우, 종래 학부에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학부의 종류에 관계없이 '교육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익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재량에 의해서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5조)

이러한 교육 연구상의 기본 조직에 대한 규정은 다양한 교육 과정의 설정이나 폭넓은 교육의 실시 등의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 과정의 편성 방침 및 방법

대학 설치 기준 중에서 교육 과정 부분은 일본 대학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교육 과정의 편성 방침과 방법 그리고 단위, 1년간의 수업 기간, 각 수업 과목의 수업 기간, 수업을 하는 학생 수, 야간 강의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교육 과정의 편성 방침에 대해서는 제 19조에 "대학은 해당 대학 학부 및 학과 또는 과정 등 교육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 과목을 개설하고,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한다."라고 규정하

였으며, 교육 과정의 편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 20조에 "각 수업 과목을 필수 과목, 선택 과목 및 자유 과목으로 나누고, 이것을 각 연차로 배당하여 편성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들은 개정 전 제 18조에서 제 23조의 이수 과목 구분에 관한 내용(수업 과목의 기준, 수업 과목의 구분, 일반 교육 과목, 외국어 과목, 보건 체육 과목, 전문 교육 과목, 수업 과목 구분에 관한 이수상의 특례 등의 조항임)을 모두 삭제하고, '제 6장 교육 과정'에서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자유 과목으로 단순화하고, 그 이수 시기도 대학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일반 교육을 경시하는 풍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심의 회의 답신(평성 3년 2월 8일)에 의하면 "일반 교육 등의 이념과 목표는 지극히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각각의 대학에서는 수업 과목의 구조에 구애되지 않고, 그 교육 이념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함과 동시에, 이 점에 대한 대학인의 의식을 신뢰한다."라고 함으로써, 일반 교육의 이념과 목표의 실현에 대해서 각 대학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매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답신에서는 수업 과목의 구분이 폐지되었으므로, 각 대학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명칭으로 수업 과목을 구분하고 적당한 최저 이수 단위수를 정할 수 있으며, 종래와 같이 개설하는 수업 과목을 전문 교육 과목, 일반 교육 과목 등으로 구분하고 최저 이수 단위수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조항은 개정 전의 일반 교육 과목과 전문 교육 과목의 개념을 폐지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하며, 그 조건이 바로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자유 과목의 3종류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과목의 이수 연차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설치 기준상의 수업 과목 구분 폐지는 한 마디로 교육 과정 구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각 대학에게 최대한으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수업 단위의 계산 방법

수업 단위의 계산 방법에서는 교육 과정상 연습, 실험, 실습 등 현장 중심의 수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업 단위의 계산 방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 주된 내용으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제 21조)

첫째, 기본적으로 수업 과목의 단위수는 각 대학에서 정하게 하였지만, '1단위의 수업 과목을 45시간의 학습(學修)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개정 전과 같이 교실 외 몇 시간, 교실 내 몇 시간이라는 단순한 기계적인 계산 방법에서 탈피하여 45시간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1단위의 수업 과목을 구성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 것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술한 교육 과정 구성의 대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종래는 단위의 계산 방법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을 각 대학에서 수업의 방법에 맞추어, 교육 효과를 감안하면서, 일정한 폭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5. 대학의 개방

대학 설치 기준 제 29조와 제 30조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대학 이외의 대학, 단기 대학, 고등 전문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 30단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항에 의해서 편입생들은 대학, 단기 대학, 고등 전문 학교에서의 학

〈표 1〉 교육 과정 개혁의 내용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과목 구분 재평가	84	33	274	391
썰기형 교육 과정	66	22	164	252
필수, 선택 재평가	88	31	271	390
단위 계산 재평가	74	21	183	278
코스제의 도입	23	8	92	123
졸업 요건 단위수	84	22	196	302

〈표 2〉 교양 교육에 관한 개설 과목(평성 7년도)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학제적 종합적 과목	87	39	303	429
소인수 세미나 과목	66	22	191	279
실험 실습 과목	56	24	169	249
학외 실무 과목	15	1	58	74
전문 교육 기초 과목	76	39	301	416
고학년 지향 과목	34	14	141	189

점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는 대학간의 단위 호환(학점 교류)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제 31조에서는 일반 사회인이 '과목 등록제'나 '코스 등록제'를 통하여 대학에 개설되고 있는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세 가지 조항은 소위 '개방된 대학 만들기'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Ⅲ. 일본에서의 대학 교육 과정 개혁의 현황

전술한 대학 설치 기준에 의해서 1991년(평성 3년) 이후 진행된 일본 대학의 다양한 개혁에 대해서 1995년도(평성 7년) 현재를 중심으로 그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간의 개혁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교육 과정의 개혁, 교육 방법의 개선, 대학의 개방화 정책이다. 특히 교육 과정의 개혁은 1995년 현재 전체 8할 이상의 대학(428개 대학)이 대학 설치 기준 대강화

에 입각하여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대학은 실시 예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육 과정의 개혁

일본 대학의 교육 과정 개혁은 교육 과정의 전체 구조, 교양 교육,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 발렌터어 교육, 다양한 학점 이수의 단위 인정 등의 항목에 걸쳐서 개혁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육 과정 개혁의 내용

대학 설치 기준 이후 교육 과정 개혁의 주된 내용은 〈표 1〉에서와 같이 '과목 구분의 재평가'나 '필수 선택의 재평가' 뿐만 아니라, '썰기형 교육 과정'이나, '단위 계산 재평가', 체계적인 이수를 하기 위한 '코스제의 도입', '졸업 요건 단위수' 등의 순서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표 3〉 외국어 교육의 개혁(평성 7년도)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목적별 클라스화	77	26	248	351
능력별 클라스화	28	6	137	171
소인수 클라스화	49	19	143	211
LL, 비디오 등의 활용	94	43	358	495
원어민 강사의 활용	82	38	300	420
단기의 집중 강의	16	7	198	221

〈표 4〉 정보 처리 교육의 개혁(평성 7년도)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정보 처리 교육의 필수화	73	32	225	330
전용 교실의 설치	95	48	389	532

〈표 5〉 발렌티어 활동을 도입한 수업(평성 7년도)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발렌티어 활동을 도입한 수업 과목 개설	26	2	46	74
발렌티어에 관한 강의 과목 개설	5	1	24	30

(2) 교양 교육에 관한 수업 과목

교양 교육의 개혁은 학제적 종합적 과목의 개설과 전문 교육의 기초 과목, 소인수 세미나, 실험 실습, 고학년 지향의 과목, 학의 실무 과목의 개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3) 외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LL,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의 활용, 원어민 강사의 활용, 목적별 클라스 편성, 단기의 집중 강의, 소인수 클라스 편성, 능력별 클라스 편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표3 참조)

(4)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내용은 정보 처리 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 과목화하거나, 정보 처리 교육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표4 참조) 특히 전용 교실의 설치하는 모든 대학이 실행하고 있다.

(5) 발렌티어를 도입한 수업의 실시

교양 과목에서 발렌티어 활동을 도입한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의 현황을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발렌티어 활동을 도입한 수업 과목이나 발렌티어에 관한 강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부산(富山) 대학의 「생활과 복지-발렌티어의 현재-」, 신호(神戶) 대학의 「사회문제자주연구」, 애지현립(愛知縣立) 대학의 「사회복지실습」, 상지(上智) 대학의 「원조행동론」, 동해(東海) 대학의 「국제발렌티어 활동보고」, 신호친화(神戶親和) 여자 대학의 「발렌티어 실습」 등을 들 수 있다.

(6) 다양한 학점 이수에 대한 단위 인정

대학 입학 전과 입학 후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대학이나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대학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표 6〉, 〈표 7〉에서와 같이 고등 전문 학교나 단기

〈표 6〉 단위 인정 규정의 정비 상황 - 대학 입학 전의 학점 이수(평성 6년도)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전문 학교의 학수	47	8	56	111
기능 심사 합격에 관한 학수	46	7	37	90

〈표 7〉 단위 인정 규정의 정비 상황 - 대학 입학 후의 학점 이수(평성 6년도)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전문 학교의 학수	45	3	34	82
기능 심사 합격에 관한 학수	40	3	36	79

대학에서의 학점 이수 그리고 실용 영어 검사나 실용 불어 검사 등 기능 심사 합격에 관한 학점 이수를 단위로 인정하는 대학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 교육 방법의 개혁

교육 방법의 개혁은 학기제 개혁에 해당하는 세메스터제의 채택, 고등학교에서의 이수 상황 배려, 소인수 교육의 실시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 세메스터제의 채택

학년을 복수의 학기로 나누고, 각 학기마다에 수업을 완결시키는 제도로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을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세메스터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의 현황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와 같이 세메스터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학 중 1개 이상의 학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대학은 238개 대학, 전 학부가 채용하고 있는 대학은 179개 대학에 달하고 있다.

(2) 고등학교에서의 이수 상황에 대한 배려

고등학교 재학시에 이수한 다양한 교육 내용을 대학의 수업에서 반영하는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와 같이 고등학교에서의 이수 상황을 배려하고 있는 대학이 292개 대학, 고등학교에서의 이

〈표 8〉 세메스터제의 도입(평성 7년도)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1개 이상의 학부 채용	70	25	143	238
전 학부 채용	41	18	120	179

〈표 9〉 고등학교에서의 이수 상황에 대한 배려(평성 7년도)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고등학교에서의 이수 상황에 대한 배려	61	16	215	292
기수조(既修組)와 미수조(未修組)로 나눈 수업	21	7	49	77
학력별 클래스 편성 수업	23	6	141	170
학력에 따른 보습 수업	13	2	30	45
기 타	28	2	34	64

〈표 10〉 소인수 교육의 실시 현황(평성 7년도)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외국어 교육	50	19	146	215
실험 실습	77	18	161	256
세미나	82	34	293	409
졸업 논문 지도	82	30	268	380

수자와 미수자를 구분하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77개 대학, 학력별 반편성 수업의 경우는 170개 대학, 학력에 따른 보습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도 4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인수 교육의 실시

1개 클래스에 20명 이하의 학생으로 편성하는 소인수 교육은 외국어 교육, 실험 실습, 세미나, 졸업 논문 지도 등에 적용되고 있다. 그 실시 현황을 살펴 보면 〈표 10〉과 같다.

3. 대학의 개방

개방된 대학을 위한 개혁은 단위 호환제, 과목등 이수생(科目等履修生), 편입생의 증대, 사회인 특별 선발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 단위 호환제

대학간 학점 교류 제도인 단위 호환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1994년 현재(평성 6년도) 260개(국립 72개, 공립 12개, 사립 17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개의 대학이 동시에 참가하는 단위 호환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경도(京都) 대학 센터 단위 호환 제도」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경도(京都) 지구 28개의 대학 및 단기 대학(평성 6년도 현재, 평성 7년도에는 31개 대학 및 단기 대학)이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하고, 조직적인 단위 호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대학의 단위 호환 제도 실시 현황을 보면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인정한 실적의 경우 202개 대학에서 10,520명이며, 타대학 학생의 과목 이수를 인정한 실적은 127개 대학에서 10,7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생의 타대학 과목 이수를 인정한 실적이 있는 대학수, 학생수(평성 6년도)

단계	국 립	상대 선별 학생수				계
		국내 대학	국외 대학	국내 단대	국외 단대	
학부	202	7,079	2,949	482	7	10,520
대학원	78	669	127	-	-	796

〈표 12〉 타대학 학생의 과목 이수를 인정한 실적이 있는 대학수, 학생수(평성 6년도)

단계	국 립	상대 선별 학생수				계
		국내 대학	국외 대학	국내 단대	국외 단대	
학부	127	7,386	1,229	2,113	-	10,723
대학원	65	609	119	-	-	728

(2) 과목등 이수생(학부)

한국의 학점 등록제에 해당되는 과목등 이수생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과 학생 수에 대한 현황을 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와 같이 과목등 이수생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학생 수도 해마다 2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3) 사회인 특별 선발

일반 사회인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회인 특별 선발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과 입학자 수를 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와 1992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사회인 특별 선발을 실시한 대학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입학자 수는 답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일본 대학 교육 과정 개혁의 동향과 시사점

1991년 개정된 대학 설치 기준의 핵심은 바로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과목 구분 폐지이며, 다른 조항들은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보완하거나

정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대학 개혁은 바로 교육 과정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부의 개혁이나 교원의 배치, 졸업 요건, 대학원 교육의 강화, 단위 인정 등도 모두 교육 과정의 개혁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대학의 교육 과정 개혁의 동향과 그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과정 개혁의 중심은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 구분의 폐지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인문, 사회, 자연, 외국어, 체육 등으로 구분되었던 교양 교육 과정의 구조와 이수 요건을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양 교육과 전공 교육의 구분도 함께 폐지하여 학생들이 대학 재학 4년 동안에 자유롭게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의 대학 교육 과정 개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동경 대학의 기초 과목, 종합 과목, 주제 과목에로의 개편이라든지 동경 이과 대학의 기초 과목, 종합 과목, 주제 과목에로의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양 교육의 개편과 동시에 대학 전체 교육 과정 편제의 개편을 단행한 경우로서는 신호(神戶) 대

<표 13> 과목등 이수생 제도의 실시 현황

연도	대학수				학생수			
	국립	공립	사립	합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평성 4년도	27	1	88	116	583	38	1,497	2,119
평성 5년도	53	10	190	253	1,501	98	3,823	5,431
평성 6년도	76	22	260	358	2,960	587	6,509	10,056

<표 14> 사회인 특별 선발 현황(평성 7년도)

구분	대학수				입학자수			
	국립	공립	사립	합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평성 4년도	23	12	121	156	370	190	3,361	3,921
평성 6년도	28	15	165	208	534	220	3,450	4,204
평성 7년도	36	16	184	236	687	228	3,274	4,189

학의 교양 원론, 외국어 과목, 건강 스포츠 과학 관련 과목, 전문 과목, 자격 면허를 위한 과목, 기타 과목 등의 구성을 들 수 있으며, 조도전(早稻田) 대학 문학부가 일반 교육 과목을 폐지하고 1년차에 전문 과목으로서 「기초 연습」과 「기초 강의」 과목을 설치하고, 외국어 과목, 광역 과목, 자유 과목, 타영역 전문 과목 등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응의숙(慶應義塾) 대학 문학부는 종래의 일반 교육 과목을 종합 교육 과목으로 개편하고, 종합 교육 과목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이수하게 하였으며, 전문 교육 과목과 종합 교육 과목을 연결하는 전 전공 공통 과목을 설치하여 전문 교육 과목이나 종합 교육 과목으로도 이수 가능하게 하였다. 상지(上智)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전학 공통 과목과 학과 과목으로 구성하고, 종래의 교양 과목인 전학 공통 과목과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학과 과목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지향하였다.

이와 같이 교양 과목과 전문 과목 구분의 폐지는 교육 과정 편제상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교양 과목과 전문 과목과의 통합된 형태 또는 다른 명칭, 다른 주제 등으로 변경되어 존재하고 있다.

둘째, 교육 과정의 구성 방식의 변화로서, 자유화의 원칙, 테마화의 원칙, 체계화 또는 고도화의 원칙, 지식의 종별(種別)화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종래 학문 분야 중심의 교양 교육 과정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교과목을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자유 과목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이들 과목을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학제간의 협동성을 강조하는 구성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경향은 종래의 교육 과정이 유지하고 있었던 학문간의 뚜렷한 경계를 초월하여 주제나 학제성을 강조하는 탄력적인 교육 과정의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신호(神戶) 대학의 교양 원론 과목과 경응의숙(慶應義塾) 대학의 전(全) 전공 공

통 과목을 들 수 있다. 신호(神戶) 대학에서는 교양 과목인 「교양 원론」을 인문, 사회, 자연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각각 3개씩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전환 교육 과목으로서 옴니버스 형식, 세미나 형식, 체험 실습 등을 들 수 있다.

경응의숙 대학의 전 전공 공통 과목은 전공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를 횡단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를 준비하였다. 이 과목은 전문 교육 과목으로도 종합 교육 과목으로도 이수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이수 시기의 탄력화를 들 수 있다. 종래에는 주로 1, 2년차에 이수하고 있었던 교양 교육을 「쌈지형」으로 변화시키면서 전문 교육과 연계 통합시켜서 「4년 일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연차별 이수 단위를 탄력화하거나, 세메스터제를 도입하여 학기 편성을 탄력화하는 것이 그 예이다. 실제로 통년(通年)제 중심의 수업으로부터 세메스터제로의 이행은 교육 과정 개혁을 추진하는 많은 대학들이 도입하고 있다. 세메스터제의 장점은 통년제에 비해서 수업 전개의 자유도가 증가한다는 것, 집중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메스터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텐시브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 학기」라고 하는 명칭의 단기 집중 교육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통상의 학기 중에는 할 수 없는 수업을 전개하는 대학도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군마(群馬) 대학의 코어코스제, 동경 이과 대학의 4년 일관 교육의 실시와 1년차의 필수 과목의 축소, 신호(神戶) 대학 교양 원론의 이수 시기(4년차까지 가능함)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교수들의 교육 조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종래의 교양 교육은 대부분 「교양부」 소속의 교원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종래의 교양 교육에 해당하는 전학 공통의 수업 과목을 특정한 교원이나 교육 조직만이 담당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탄력화, 다양화하는 방향으

로 교육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문 과목의 담당자나 대학원 과정의 담당자들도 교양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양 과목 담당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과정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신호(神戸) 대학과 동경 대학 그리고 대판(大阪) 대학을 들 수 있다.

신호(神戸) 대학에서는 교양 교육 담당 교수와 전문 교육 담당 교수의 구분을 우선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종래 교양 교육을 담당하던 교수들을 신설 학부나 신설 학부에 배치시키고, 교양 과목인 전학 공통 수업 과목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등록된 13개 교과 집단(인문 과학, 사회 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학, 도학, 자연 과학사, 정보 과학, 건강 스포츠 과학, 외국어 제1, 외국어 제2 등)의 교수들이 담당하게 하였다. 이 수업의 실시는 교양 학부를 대신하여 설치된 대학 교육 연구 센터가 담당하게 하였다. 대학 교육 연구 센터는 전학 공통 수업 과목 실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업 과목의 선정, 교육 내용의 조정, 수업 시간 비율의 편성, 수업 담당 교수의 선임, 기말 시험의 실시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동경 대학의 경우 모든 교양 학부의 교수들은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게 하여, 각 교수들로 하여금 대학원에서 수행한 전문적 연구의 결과를 교양 학부에서의 강의를 통하여 환원하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판(大阪) 대학에서는 1994년(평성 6년)에 4년(6년) 일관 교육 교육 과정 개혁을 실시하고, 교양부를 폐지하고,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새로운 전학 공통 교육 기구를 설치하고, 기구장에 부학장을 배치하고, 상설 카이던스실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원칙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대학의 교육 과정을 개혁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청수외삼(清水畏三), 정문부이부(井門富二夫), 대학(大學)カリキュラム의재편성(再編成)-これからの학사교육(學士教育), 옥천대학출판부(玉川大學出版部), 1997,
 일본(日本) 문부성(文部省), 문부시보(文部時報), 2000년(年) 1월호(月號).
 석정양이랑(石井洋二郎), 대학설치기준(大學設置基準)의개정(改正)について, 「대학개혁(大學改革)とは하(何)か-대학인(大學人)からの보고(報告)と제언(提言)-」, 등원서점(藤原書店), 1993.
 일본(日本) 문부성(文部省) 고등교육국(高等教育局) 고등교육연구회편(高等教育研究會編), 「대학(大學)의다양(多様)な발전(發展)을목지(目指)して-설치기준(設置基準)의해설(解説)とQ&A-」, 평성(平成) 4년(年) 7월(月).
 문부성대학심의회(文部省大學審議會), 대학설치기준(大學設置基準)의개선(改善)について, 평성(平成) 3년(年) 2월(月) 8일(日).
 일본문부성(日本文部省) 고등교육국(高等教育局) 고등교육연구회편(高等教育研究會編), 「대학(大學)의다양(多様)な발전(發展)을목지(目指)して-대학교원(大學教員)의임기제(任期制)と고등교육(高等教育)의장래구상(將來構想)-」, 평성(平成) 9년(年).
 민주교육협회(民主教育協會), 현대(現代)의고등교육(高等教育), 1994년(年) 7월호(月號).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실, 일본의 최근 교육 동향, 2000. 3.
 교육부 일본 방문단, 일본 문부성 초청 방일 보고서(99. 7. 24-7. 28), 1999. 12.

유영식

종이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저서 및 논문에는 「1920년대 전반기 한국인의 교육진흥운동연구」와 다수가 있다.